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

제23과 예언과 역사

[딤후1:18,19]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성경에는 세상의 역사를 미리 보여준 예언들이 있다. 그것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인간의 호기심을 위하여 예언한 것이 아니다. 예언을 연구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런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역사적 시점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현실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지혜를 제공한다. 예언의 지도(指導)를 올바르게 받을 때 우리의 신앙양심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 예언을 모르면 그의 신앙생활은 흑암 속을 더듬는 것과 같이 된다. 이제 그 사실을 공부해보자.

1.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는가?

[사44:24]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뚫으며 땅을 베풀었고.

[사42:8,9]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9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사41:21-23]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22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의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23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 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 말씀을 예언의 능력이 없는 신은 참 신이 아니라는 선언이다.

[사43:11,12]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상의 말씀에서 성경의 하나님이 자신을 세 측면으로 나타내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만유의 주

둘째, 예언의 하나님으로서 역사의 주

셋째,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생명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창조주로 나타내시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시는 것이고,

예언의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것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한 것이며,

생명의 주로 나타내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계시하는 것이다.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그분이

마련한 길을 따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2. 예언의 실상은 어떤 것인가?

[46:10]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단4:17]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 예언은 예정(豫定)을 발표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예지(豫知)하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예정은 그 일에 예정자의 의지가 들어 있는 것이고, 예지는 예지하는 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는 것일 뿐이다. 예지하기 때문에 예정이 된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

3. 예언의 목적은 무엇인가?

[요13:19]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요14:29]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 예언한 일이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4. 성경 예언의 중심선(中心線)은 무엇인가?

[단9: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 예언의 중심선은 구세주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구속사(救贖史)이다. 다른 모든 예언은 이 구속의 예언의 성취를 도우는 보조 예언들이다. 구속의 역사를 확실히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 나라들의 역사를 미리 말씀하시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인 것이다.

세상 나라들의 역사도 구속의 역사와 관계된 나라들의 역사를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나가도록 하셨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요4:22). 그래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에 부정적으로나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에 대하여 그 흥망성쇠를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면 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은 없느냐고 엉뚱한 질문은 하지 않을 것이다.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오신 후에는 역사 예언이 교회의 발전과 진행으로 옮겨진다. 이제 국가가 구원의 섭리에 옛날처럼 작용하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고 교회가 그 일을 맡을 것이기 때문이다.

[창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갈4:4,5]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눅24:26,27]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눅24: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 이 말씀들은 다 성경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들이다. 단 9:24에 말한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경의 다른 모든 예언들도 것처럼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인하는 척도로 삼으라는 것이다. 과연 이것은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예수 사건은 이처럼 구원에 중심인 동시에 모든 예언의 확증도 되는 것이다.

5. 예언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딤후1:18,19]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 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 예언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믿음이 파선한다. 왜냐하면 믿음이 나아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이다. 예언은 예수를 믿고 천성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시대를 따라 예수 믿는 믿음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된다.

[벧전1:11,12]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12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 이 말씀은 다니엘 9:24-27에 기록된 예언에 대한 언급이다. 예수님의 고난 받으실 정확한 때와 시에 대한 예언은 이것이 유일하다. 정말 이 예언대로 예언된 때와 시에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

[벧후1:19]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샅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 예언을 깨달아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흑암을 더듬는 믿음이 된다.

[사29:9-13]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10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11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12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13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 이 말씀은 계시를 바르게 깨닫지 않으면 잠자는 자들이 된다고 가르친다. 예수께서는 깨어 예비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계시를 깨달아 그 계시의 인도대로 믿고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면 잠자는 신앙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회가 예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 복음과 예언의 관계도 모른다. 그래서 모두 자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진정으로 벗어나 깨어 있어야 한다.

6. 말세에 특별히 연구해야할 예언은 어느 것인가?

[마24: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 이 말씀은 다니엘서를 연구하라는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대하여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바르게 깨닫고 마지막 때를 바른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단12:4]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까지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다. 다니엘서에는 끝, 마지막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온다. 책의 성질이 마지막 때까지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니엘서에는 마지막이라는 말이 6회 나타난다. 끝이라는 말도 14회 있는데 그 중에 절반가량이 마지막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끝에 관한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월이 바로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다. 예언을 연구하고 바르게 깨달아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도록 하자.